

## 국교위가 '폐지론'을 피하는 방법

태평로

김승범  
주말뉴스부장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래용 국교위 위원장이 김경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에 훨씬이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특검이 이 위원장 자택과 국교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 말고 국교위라는 기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교위는 출범 3년 된 조직이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다만 내부 갈등이 자주 보도됐다. 게다가 국교위는 2022년 9월 출범 후 30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된 국가 교육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선 휴업 상태다. 이 위원장 말고도 위원 6명이 지난 4일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정쟁(政爭)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졌다. 교육 정책은 이해관

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고 이념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다.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보수와 진보로 갈리져 충돌했고 양측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하 전문위원회는 내용 끝에 지난해 11월 해체됐다가 올해 1월 다시 구성됐다.

국교위 1기는 사실상 빈손으로 이달 막을 내린다. 대학 입시와 교육 과정 등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1기 국교위, 별다른 성과 없이 300억원 쓰고 빈손으로 종료  
새 위원장 정치 성향 논란  
다른 위원들 전문가로 채워야

발전 계획'을 작년 9월 내놓겠다고 했지만 몇 차례 미뤘다. 지금으로서는 발표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성과를 내기에는 커녕 '수능 이원화'나 '내신 절대평가' 같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 외부로 흘러나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다.

국교위는 문제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2021년 7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 속에 국교위 설치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 알박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국교

위 위원 21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중 3명이 여당 봉이다. 여기에 교육부 차관 등을 합치면 과반을 친정부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처음 법안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조항이 있어 문 정부 임기 말 국교위 출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입법 날치기'라는 비난과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해 출범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제 2기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소수 여당 체제이던 1기 국교위와 달리 거대 여당이 뒤를 받치고 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총장 경력 외에 교육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이력을 찾기 어렵다. 정파색이 짙다는 평기도 많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학생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국교위 수장으로서 적임자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국교위가 '정권 초월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려면 나머지 위원은 정치색 없는 교육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편파성을 걷어내고 합리적 논의 기준으로 거듭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교위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는 커녕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면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에 직면할 것이다.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물랭루주에서, 1892-5년, 캔버스에 유채, 123x141cm,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소장.

여성은 전설적 댄서 '라 굴리'다. 인기 스타들 사이 신사들은 물랭루주의 단골들, 속된 말로 '죽돌이'다. 그러나 물랭루주 최고 '죽돌이'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로트레크였다. 화면 뒤쪽, 구부정하게 선 남자 옆의 유난히 키가 작은 이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로트레크는 왜소증을 앓은 데다, 어릴 때 낙마 사고를 당한 탓에 작은 키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 그의 부친은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나 말과 독수리, 연날리기에 열광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기행을 일삼았다. 관습을 저버리고 파격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화가가 아버지를 닮았음이 틀림없으나, 아버지는 말을 타지 못하는 아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8]

### '물랭루주' 댄서의 진짜 얼굴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Henri de Toulouse-Lautrec·1864~1901)의 '물랭루주에서'를 들여다보면 그림 오른쪽, 여자 얼굴을 그린 부분을 도려내려 캔버스를 세로로 잘랐다 다시 이어붙인 자국이 설명하다. 화상(畫商)이 이 얼굴 때문에 그림이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잘라냈던 것 같다. 얼굴 주인은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나가던 나이트클럽 '물랭루주'의 댄서이자 가수 메이 밀턴이다. 때마침 두꺼운 무대 화장을 하고 조명 아래를 지나가는 바람에 기묘하게 시퍼런 얼굴이 돋보였다.

밀턴 뒤, 뒤돌아 앉은 오렌지색 머리카락은 강강 댄스로 무대를 사로잡던 잔 아브릴,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여성은 전설적 댄서 '라 굴리'다. 인기 스타들 사이 신사들은 물랭루주의 단골들, 속된 말로 '죽돌이'다. 그러나 물랭루주 최고 '죽돌이'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로트레크였다. 화면 뒤쪽, 구부정하게 선 남자 옆의 유난히 키가 작은 이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로트레크는 왜소증을 앓은 데다, 어릴 때 낙마 사고를 당한 탓에 작은 키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 그의 부친은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나 말과 독수리, 연날리기에 열광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기행을 일삼았다. 관습을 저버리고 파격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화가가 아버지를 닮았음이 틀림없으나, 아버지는 말을 타지 못하는 아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을 전혀 들보지 않았다. 상류 사회에서 낙마하듯 떨어져 버린 그는 술과 매춘부에게 몸을 맡긴 채 유흥가의 초라한 밀비단을 그리다 1901년 9월 9일 짧은 생을 마감했다. 절라내야 할 만큼 기괴했던 메이 밀턴의 얼굴에서 화장을 지우고 조명을 내린 뒤의 진짜 모습은 로트레크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최악 국좌 전체주의자 최강욱의 발상법

newdaily.co.kr 뉴데일리

## 스탈린·모택동·폴 포트·김일성 3대 수준 ... "2찍들 한날한시 묻어 버리면..."

## 뉴데일리의 특종 보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최강욱(57)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들을 잊지 못하겠다. 그는 조국혁신당 성주행 사건에 대해 "사소한 문제. 그게 죽고 살 일이냐"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후속 보도에선 더욱 섬뜩한 망언까지 쏟아냈다.

뉴데일리 특종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은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자신의 책 토크쇼에서 우파 지지 국민들을 겨냥, "2찍들을 한날한시에 묻어 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 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은 생각이 없어 옮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극언도 곁들였다.

《2찍》은 기호 2번을 쓰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 대통령 이재명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2찍》이라 했다가 사과했다.

## 민변 출신 586 좌익 정치인의 민낯

최강욱은 1968년 전라북도 남원 출생, 전라 고교-서울대 법대 졸업, 민변 출신 586 좌익 정치인. 좌익정권-정당에 반대하고 비(非)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한날한시에 묻어버리면~"이라는 극언은 좌익이라는 말로는 부족

하다. 스탈린, 모택동, 폴 포트, 김일성 일가 수준, 국좌 중에도 최악의 극좌 전제주의자 수준이다.

최강욱은 문제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냈다.

그러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으로 2023년 9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른바 《캡妖怪》 운운하는 낮 뜨거운 발언의 당사자이다.

## 이런 자가 1백만 당원 교육한다니

최강욱은 이재명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뒤 불과 일주일 뒤인 8월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교육연수원은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던 2023년 1월 이른바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었다. 연수원장은 10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교육을 총괄한다. 이재명은 "당직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같은 자가 수장인 교육연수원이 당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태연히 "피바다" 선동하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뉴데일리 특종 보도로 처음 밝혀진 최강욱의 역대급 망언과 관련, 한 소설 미디어 이용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을 학살하라고 선동하는데 국힘은 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 신홍고-서울법대를 졸업한 자우파 성향 김향훈 변호사는 SNS에 최강욱 기사를 링크하며 "2008년쯤엔가, 전북의 내 친한 고등 친구 하나가 나에게 《보수반동 10만 명만 죽이면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게 민주화 될텐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최강욱과 같은 섬뜩한 극좌적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9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

NO.  
17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